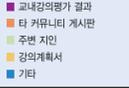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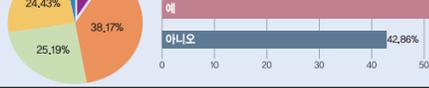


## 4>> 강의평가실효성 제고

수강신청에 앞서  
주로 이용하는 정보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법 교육 수혜 경험



## 5>> 빅뱅에서 문명까지 짚어보기 ⑤



## 2017학년도 2학기 수강희망과목담기 안내

유형 : (1)희망과목담기 (2)예비과목담기  
실시기간 : 1차 2017. 06. 19(월) 10:00 ~ 06. 29(목) 17:00  
2차 2017. 07. 19(수) 10:00 ~ 07. 21(금) 17:00  
참여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 및 복학 예정 휴학생  
대상강좌 : 2017학년도 2학기 개설강좌

# 완공까지 한달 기존 건물은?

### SPACE21 공간 조정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서울】SPACE21 건물 신축에 따라 이전하는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의대학이 사용하던 기존 건물에 대한 사용 계획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SPACE21 완공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기존 건물 사용을 원하는 단과대는 많지만, 아직 본부에서는 공식적인 계획을 밝힌 바 없다.

신축 건물로 인해 비는 공간은 약 5,000평이다. 당장 9월부터 5,000평이 공실이 되지만,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간 부족을 호소하던 여러 단과대학은 적어도 올해까지 여전히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러 단과대가 기존 건물을 원하지만, 정작 학교 측과 의미 있는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과대학은 의과대학뿐이다. 의과대학 행정실 측은 "이미 간호과학대학을 사용하기로 총장실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2학기에 리모델링 작업에 들어가 내년 1학기부터 강의실과 연구실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문과대학 행정실 측은 "본부에서 먼저 제안한 논의 테이블은 없다"며 "공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끝에 6월 중순 문과대학 교수와 학교 측 관계자들이 함께 빈 공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대학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경대학 행정실은 "확장을 통해 빈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 측과 논의 테이블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간 확보가 절실한 단과대학으로서 답답한 노릇이다.

학교 측은 "기존 건물 사용에 대한 계획이 나올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총무관리처 정진봉 처장은 "이과대학의 경우 아직

이사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이사 계획이 확정돼야 기존 공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건물 사용을 요구하는 단과대학과 부서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계획안을 밝힐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총장실 정진무 과장 또한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축 건물로 들어가는 단과대학의 이사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관리팀, 재정 예산처 등 관련 부서와 공간사용을 원하는 단과대학, 부서들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단과대학의 경우 건물의 도면이 나올 때부터 단과대학 구성원과 학교 측이 함께 논의를 해왔다. 기존 건물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지금과는 상반된 행보이다.

학교 측의 이러한 태도에 학생회 또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정경대학 학생회 우예림(언론정보학 2015) 회장은 "각 단과대 대표가 참석한 회의를 진행하고 싶다고 본부에 밝힌 상태지만 담당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를 미루고 있다"며 "일단 단과대학 차원에서 정경대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달라는 요구안을 부총장실로 보냈다"고 밝혔다. 문과대학 학생회 김지현(영어통번역학 2015) 회장 또한 "담당 부서가 확실치 않다면 학생회가 참여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회장은 "기존 공간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무하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통신만 난무하다"며 "기존 공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해 복원된 '청년'

1989년에 그려진 벽화 '청년'은 청년들의 저항정신을 상징한다. '청년'은 수도권 대학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민중벽화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을 겸해 지난 9일 이뤄진 '청년' 복원 기념식에서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 관장은 "경희대 벽화는 팍팍한 현실 앞에서 고뇌하는 21세기 청년들에게 저항정신의 회복을 권면하고 있다"고 평했다. (글=김지담 기자, 사진=이수형 기자)

## Newsmaker

Humans of KyungHee University  
박건우(체육학 2016) 디렉터



## '삶의 소중함'과 '공감'을 이끌어내다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 매일 SNS에는 여러 정보가 정신없이 올라온다. 그 중 한 장의 사진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다. 'Humans of KyungHee University'가 바로 그들이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그저 좋아서 한다는 Humans of KHU의 박건우(체육학 2016) 디렉터를 만났다.

Humans of KHU는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들은 진솔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는 'Humans of New York'의 형식에 착안해 우리학교에 적용한 콘텐츠다. 캠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인터뷰 여부를 묻고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전달한다. 아무도 시키지 않고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하는 이유를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건우(체육학 2016) 디렉터는 인간관계에 지쳐있던 시기를 회상하며 "사람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느꼈고 해답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며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친 감정을 회복하고 치유 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Humans of KHU를 시작한 계기를 말했다.

현재 Humans of KHU는 촬영 및 인터뷰를 담당하는 5명과 영어번역을 담당하는 인원 2명으로 운영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개의 게시물을 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게재한다. 자발적인 하지만 아무런 지원 없는 일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다. 박 디렉터는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장비와 자금상의 문제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인지도가 낮고 신상을 노출해야 하는 형식 때문에 인터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들은 한국어 인터뷰를 영어로도 번역해 제공하고 있다. 매번 사진촬영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인터뷰를 영어로 번역한 후 게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박 디렉터는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역시 우리학교의 구성원이라 생각했다"며 "외국인 학생들의 소중한 삶도 담아내고자 영어 인터뷰를 함께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시작한 인터뷰  
지친 감정을 회복하고 일상의 특별함을 담다

앞으로의 계획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박 디렉터는 'Humans of' 콘텐츠를 운영하는 다른 학교들을 소개하며 "페이스북에만 게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시회를 열 계획이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모아 책을 출간해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는 국제캠퍼스에서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음 학기부터 서울캠퍼스까지 확장할 계획인 Humans of KHU. "학교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의 일상이라고 해도 모두 특별하고 그 일상의 특별함을 담고자 한다"는 박 군과 이들의 열정을 응원해 본다.

#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처우개선" VS "무리한 요구"

### 중핵교과 교수 처우개선 논란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지난 7일 학교 곳곳에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중핵교과 교수회의(교수회의) 명의로 대자보가 붙었다. "저희는 후마의 중핵교과 소속 객원교수·시간 강사들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대자보는 후마에서 중핵교과 과목 '인간의 가치 탐색'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르치는 교수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처우개선을 조인원 총장에게 직접 요구했다. 해당

대자보에 학교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기며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 관련기사 3면)

중핵교과 교수회의의 요구사안은 크게 4가지로 ▲후마 출범 이후 7년간 유지돼온 교수임금 인상 ▲시간강사들의 객원교수로의 점진적 신분전환 ▲객원교수 전원의 신분안정화 ▲서울캠퍼스(서울캠)와 동일 비율로 국제캠퍼스(국제캠) 객원교수들의 비정년전임으로의 즉각적인 신분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대자보 게시 이전인 2일에는 교수회의가 후마 대학장 직무대리인 서울캠 부총장실을 방문해 합의성명

을 제출하기도 했다.

후마는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역할과 목적을 확인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교양교육을 위해 지난 2009년 말부터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논의를 시작해 2011년 3월 최종 설립됐다. 이후 후마는 우리대학의 상징이 되면서 인문학 교육 중심대학 이미지 강화에 일조했으며 전공과 취업만을 중시하던 기존 대학의 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 학생들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후마는 일반 단과대학과는 다르게 객원교수와 시간강사

의 비중이 높다. 교수회의는 "후마를 출범시키는 과정부터 참여했던 객원교수와 시간강사들이 지금까지 7년간 근무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동안 내적가치를 인정받은 강사들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길 바라지만 학교 측에선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캠 후마 유정안 학장은 "애초에 후마 객원교수들은 다른 단과대학의 교수들에 비해 좋은 여건에서 출발했다"며 "전임교원으로의 전환도 이뤄지는 상황에서의 무리한 요구는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 알림

이번 호가 2017학년도 1학기 중간호입니다

방중에도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 카카오톡 오픈ID : 대학주보
-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 트위터 : @khunesws
-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교수 칼럼

교육적페 청산과 대학의 미래  
이기라(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7면

